



1930년 9월 15일생

미나마타병환자운동의 선두에 서서, 잇소 미나마타병환자연맹위원장이었던 고 가와모토 테루오씨의 아내.

돌아가신 남편의 환자지원활동과 가족들이 당한 고생에 관해 이야기함.

2002년 1월부터 미나마타병자료관의 증언인으로 됨.

미나마타시 쓰키노우라 재주.

가와모토 미야코 씨

저는, 전 잇소 미나마타병환자연맹위원장이로서, 환자구제운동의 선두에 서서 활동해온, 고 가와모토 테루오의 아내 가와모토 미야코입니다. 2002년 1월부터 미나마타병의 증언인으로 되었습니다.

남편의 아버지는 극증(劇症)형 미나마타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정신병원의 어두운 병실에서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목격한 것은 경련으로 사발을 바로잡지 못해 깨뜨리기거나, 말도 제대로 못하고, 구두도 혼자서 신을 수 없는 태아성 미나마타병의 애들이었습니다.

보상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매일 하루하루를 힘껏 살아가는 애들을 구제하기 위하여라고 남편은 나섰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잠재되어 있는 미나마타병환자의 발굴이며, 잇소공장앞에 앉아서 시위하던 일, 잇소사장과의 교섭하던 일, 지원활동을 반대하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괴로움등...지금 생각하면 실로 파란만장한 삶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폭력적인 환자라고 욕을 얻어 먹거나 아들들은 “범죄자의 아이”라고 매도되어 우리 가족도 남편의 운동을 지탱하는 것에 즈음하고 고생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비참한 공해를 고소하는 남편의 운동이 없었더라면 소리를 내어 말할수 없었던 많은 환자들이,구제를 받을수 없었고,지금쯤은(미나마타병)이라는 큰 공해가 일어난 것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없애버리지도 모릅니다.그렇게 목숨걸고 싸워온 결과 미나마타병의 해결책으로 연결된 거라고 저는 남편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후세에 전하고 싶습니다...그런 마음으로 저는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 나갈겁니다.

